



‘오늘 편안하게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와인’

## 다렌버그 스템프 점프 샤르도네

The Stump Jump Chardonnay

|          |                                                                                   |    |       |
|----------|-----------------------------------------------------------------------------------|----|-------|
| 지역       | 호주 > 남호주 > 맥라렌 베일                                                                 |    |       |
| 포도품종     | 샤르도네 100%                                                                         |    |       |
| 알코올      | 13.5%                                                                             | 용량 | 750ml |
| 시음 적정 온도 | 10~13℃                                                                            |    |       |
| 테이스팅 노트  | 배, 약간의 열대과실의 향이 나고 프렌치 오크 숙성에서오는 스파이스, 나무 향이 특징이다. 프레쉬한 스타일의 샤르도네로 편하게 마시기 매우 좋다. |    |       |
| 페어링 TIP  | 해산물/ 샐러드/ 각종 치즈/ 디저트                                                              |    |       |



### 제품설명



스템프 점프의 레이블은 시력검사지에서 착안하여 레이블의 맨 아래 글씨를 읽을 수 있다면 다음 잔을 마셔도 된다는 재치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와이너리



다렌버그는 남호주 대표 부띠고 와이너리로, 전통적인 양조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쉬라즈 & 비오니에를 블렌딩 하는 파격적인 시도와 스토리를 담은 독특한 제품명 등 호주에서는 독창성과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는 와이너리이다. 다렌버그는 남호주 지역 프리미엄 레드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맥라렌 베일에 위치해 있으며 1912년 조셉 오스본(Joseph Osborn)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까지 가족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Australia's First Families of Wine (호주 가족 경영 와이너리)의 12개 와이너리 중 하나로 호주 와인 역사를 반영하는 와이너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와인 & 스피릿(Wine & Spirit) 매거진으로부터 올해의 100대 와이너리로 총 4회 선정, 디켄터(Decanter) 매거진으로부터 2017년 올해 방문해야 할 와이너리로 선정되었다. 레이블의 레드 스트라이프가 특징인 프리미엄 와이너리이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렌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